

사회경제적 특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부*

정서윤** · 심명규***

요약

본 논문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 인식이 기반이 되는 기부 행위와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2022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세-용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1) 노동소득이 높은 사람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기부할 의향은 낮고, (2) 자산소득이 높은 사람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 이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등 개선 의지가 높은 반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선 의지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결과들의 강건성 역시 검증하였다.

주제분류 : B030100, B030400

핵심 주제어 : 불평등 인식, 기부 행위, 소득격차, 정치성향

I. 서론

Piketty(2017)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의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는 논쟁적인 책을 발표한 이후, 소득 혹은 부의 불평등에 대한 다양

* 본 연구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2명, 양희승, 조수진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본 논문은 정서윤(제 1저자)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와 용운장학재단(연세-용운 연구 지원사업 2021-11-041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e-mail: seoyoonjeong@yonse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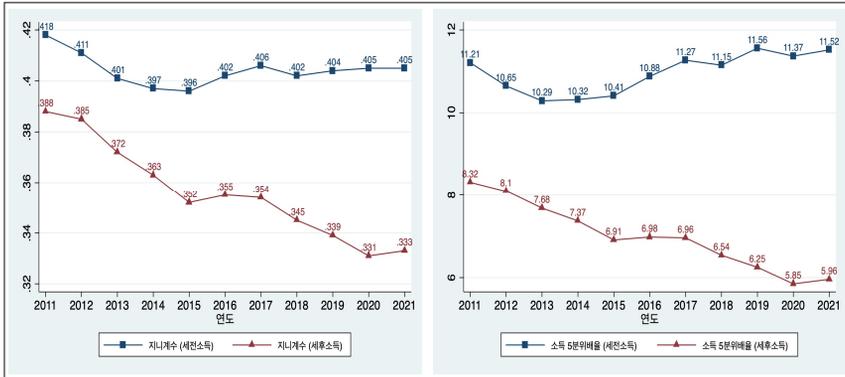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myungkyushim@yonsei.ac.kr

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Saez and Zucman(2016)에서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미국의 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여주었고, 이후 모든 국민소득을 최대한 반영한 국민 분배 계정(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 데이터를 구축하여 미국의 세전 세후 소득 분배 증가 추세를 추정하였다(Piketty, Saez, Zucman, 2018). Piketty, Yang, Zucman(2019)는 1980년대부터 중국의 사유재산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 증가함을 관찰하면서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는데, Lee, Kim, Cin(2013)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 확대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발견과 달리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실제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은 지난 10년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¹⁾으로 계산한 대한민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소득 5분위배율(Income quintile share ratio)을 보여준다. 왼쪽 그림의 사각형 마커 선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전소득 지니계수 추세를 보여주고, 삼각형 마커 선은 세후소득 지니계수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프 상에서는 지난 10년 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수 값을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에 무관하게 0.3에서 0.4 사이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 소득 5분위배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1분위(하위 20%) 소득 집단 대비 5분위(상위 2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 배율을 의미한다. 즉,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줌으로서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전소득에 대한 5분위배율을 나타내는 사각형 마커 선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11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세후소득에 대한 배율을 보여주는 삼각형 마커 선을 통해서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1) 시장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을 모두 합한 값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세후소득을 의미하며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을 합한 값이다.

〈그림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자료 : 통계청, 원: 지니계수 오: 소득 5분위배율.
 Source: KOSIS, L: Gini coefficient R: Income quintile share ratio.

위 〈그림 1〉과 같이 실제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데이터와 합치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의 소득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2018)에 따르면 당시 조사 응답자 중 80% 이상이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개인이 경제적 불평등을 인식할 때 관련된 절대적 데이터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 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인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로 정치적 이념, 정보량, 교육 수준 및 매체 노출 등을 언급한 McCall and Kenworthy(2009)와 Bartels(2008)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인식이 실제 기부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022년 실시된 연세-용운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회귀분석식을 추정하고, 이후 인과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에서 도구 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 임금이 높은 사람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자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둘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크게 없게 나타나지만, 불평등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차이를 보였다. 정치적 이념이 중도보다 진보에 더 가까운 사람은 경제적 불평등의 존재와 이러한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모두에 동의하는 한편, 보수에 더 가까운 사람은 불평등의 존재는 인지하면서도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분석한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실제 기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임금이 높은 사람은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정도가 낮게 추정되었고,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 성향을 고려했을 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부하고자 하는 정도가 낮게 관찰되면서 불평등 개선 의지가 낮게 나왔던 결과와 합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가져오는 인과성을 관찰하기 위해 지역별 신규주택보급률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약한 도구변수 문제(Weak instrument problem)의 한계로 인해 인과관계를 논의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Benabou and Ok(2001)가 보인 미국 저소득계층의 낮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서도 관찰이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마지막으로, 계량화된 개인의 재산 수준 및 정치 이념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 인식 정도를 분석한 Hvidberg, Kreiner, and Stantcheva(2020)의 연구와도 차별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에서 활용된 변수와 실증분석 방법론을 소개한 후, 제Ⅲ장에서 주요 분석 결과 및 강건성 검증을 위한 추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II. 변수 및 실증분석 방법론 소개

1. 변수 소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팀에서 제공하는 연세-용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²⁾ 해당 조사는 2022년에 진행되었으며, 2월에서 3월 사이에 대한민국 성인 10,000 명을 대상으로 본조사와 이후 6월에 2,000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관련 부가조사가 진행되었다. 두 조사 모두 횡단면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에서는 본 조사 자료를, 강건성 검증을 위한 추가분석에서는 부가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 기부 관련 변수, 그리고 개인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담은 변수들을 활용했는데, 이때 사회경제적 특성을 담은 변수들은 개인의 노동 임금 및 자산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와 정치적 이념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표 1>에 주요 분석에서 고려한 주요 통제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였다. 특히 교육 수준이나 정보량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McCall and Kenworthy, 2009)는 기존 연구에 따라 교육 수준을 통제하였고, 개인이 받는 정보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형태 또한 통제하였다.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시/도 수준의 지역을 통제하였다.³⁾ 고용 형태의 경우 전체 샘플의 약 70%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의 경우 절반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세-용운 설문조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 기반 경제 연구”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용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3) 연세-용운 설문조사 기준 시/도 수준의 지역은 총 17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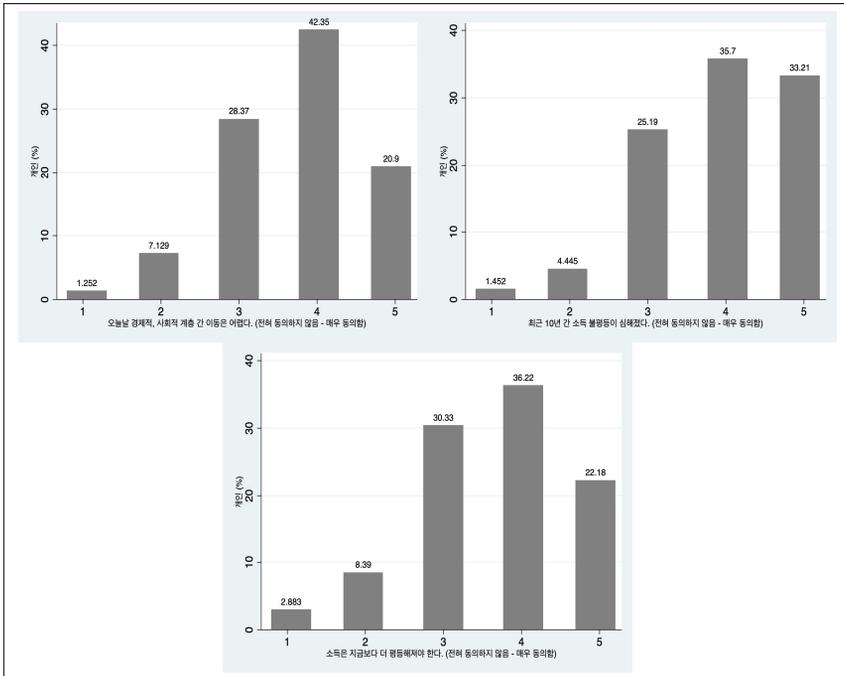
〈표 1〉 개인 특성 관련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성별	남성			여성	
	5,077			4,911	
나이	평균			최소값	최대값
	44.14			20	69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5,150			4,838	
종교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5,728	1,299	1,912	918	131
고용상황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자	학생	기타
	4,835	1,367	829	514	2,4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석사 이상
	75	2,452	1,649	4,863	949

자료: 2022 연세-용운 설문조사.
Source: 2022 Yonsei-Yongwoon Survey.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변수 중 하나인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관련 변수는 주어진 경제적인 불평등에 관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세 개의 문항을 통해 생성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리고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라는 세 개의 문항에 대하여 5 단계의 척도 중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 대한 변수들은 1에서 5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2〉는 각각의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문항에 대한 개인의 동의 정도를 보여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체 샘플 9,988 명 중 약 60%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2〉는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그림 2〉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관련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Survey Results on Economic Inequality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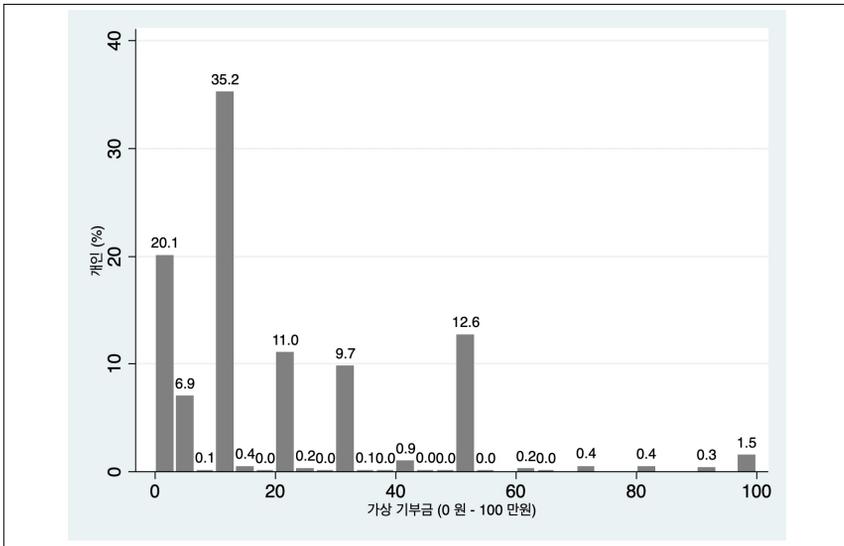


자료: 2022 연세-용운 설문조사.
Source: 2022 Yonsei-Yongwoon Survey.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연구하는 기존 연구(Andreoni and Payne, 2013)에 따르면 기부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필요에 대한 지적인 인식(Intellectual recognition of a need)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실제 타인에 대한 기부의 증대라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이 중 얼마를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또 하나의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문 참여자들이 해당 문항에 대해 답변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담아내고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기부를 한 개인의 기부 정도가 아닌 가상의 기부 정도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에 대한 선택 편향과 같은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에서는 개인이 예기치 못

하계 100만원을 받았을 때 희망하는 가상 기부금 정도를 보여준다. 기부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전체 샘플의 약 20%이고, 10만원 내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모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부를 아예 하지 않는 0의 값도 의미 있는 관찰이기에 추후 분석에서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그림 3〉 개인의 가상 기부금 정도(Survey Results on Donation Question)



자료: 2022 연세-용운 설문조사.
 Source: 2022 Yonsei-Yongwoon Survey.

설문조사에서 총 소득과 노동 제외 소득만을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총 소득에서 노동 제외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을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노동 제외 소득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자산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산 중 일부인 자본 자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하였다.⁵⁾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와 현재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

4) 이를 위해 해당 문항의 대한 관측치에 각 1의 값을 더하여 로그를 취했을 때 기부를 하지 않는 관측치의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였다.
 5) Greer(1997)에서는 자산을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정의했고, 이 중 하나인 자본 자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한, 이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격을 자산의 정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때 자가 보유자 7,198 명 중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개인을 제외한 총 4,694 명의 샘플을 활용하였다.

개인의 정치 이념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의 진보/보수 스펙트럼 위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이 문항을 통해 본인의 정치 이념으로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매우 보수적’ 총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이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는 ‘매우 진보적’과 ‘진보적’을 진보, ‘중도적’을 중도, 그리고 ‘보수적’과 ‘매우 보수적’을 보수로 설정하여 총 세 개의 정치 이념을 정의하였다.⁶⁾

이 외에도 개인의 정치 이념의 영향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위해 2022년 연세-용운 설문조사의 부가 조사에 있는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항 및 데이터 설명은 강건성 검증 부문에서 다시 소개한다. <표 2>는 주요 분석에서 사용한 정치 이념 관련 변수를 위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중도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의 57%가 개인이 진보적 성향을 띤다고 답변하였다.

<표 2> 정치 이념 관련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s of Political Ideology)

“귀하는 스스로가 진보-보수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조사 (대상: 9,988명)	매우 진보적 /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 매우 보수적
	2,572 명	5,484 명	1,932 명

자료: 2022 연세-용운 설문조사.
Source: 2022 Yonsei-Yongwoon Survey.

2. 실증분석 방법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각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

6) 정치 이념을 정의할 때 ‘매우 진보적’과 ‘매우 보수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진보/보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했을 때에도 정치 성향이 불평등 인식 및 기부에 미치는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저자들에게 요청하면 제공가능하다.

한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부 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 불평등 인식이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상의 상황에서 희망하는 기부금 정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해 개인의 기부할 의향 정도를 측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추정하였다.

$$Y_i = \theta_0 + \theta_1 X_i + \beta Z_i + \epsilon_i \quad (1)$$

여기서 Y_i 는 개인 i 의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종속 변수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장 세 가지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와 가상의 희망 기부금 정도를 포함한다. 이때 희망 기부금 값이 0원인 관찰치도 유의미하기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체 관측치에 각 1의 값을 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X_i 는 개인 i 의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독립변수 벡터로, 개인의 노동 임금, 주거용 부동산 보유의 여부 및 그 시장 가격,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담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변수는 주거용 부동산을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1로 표현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0으로 표현한 더미변수이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 설문 조사 당시의 시장 가격을 의미하며, 2 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⁷⁾⁸⁾ 정치적 성향은 '보수', '중도', '진보'의 세 가지 이념 중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나타낸다. 추가분석에서는 투표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정치 성향 변수를 재정의하였는데, 관련해서는 추후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7)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세-용운 설문조사에서 두 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샘플 중 자가 부동산 이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작성한 가구(866가구)에 대해서 같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문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8) 주요 분석에서는 총자산 변수를 활용하였으나, 남아있는 주택 담보 부채를 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순자산 변수를 생성하여 실증분석을 하여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해당 결과는 저자에게 요청하면 제공가능하다.

마지막으로 Z_i 를 통해 개인 i 가 가지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타 특성을 통제하였는데, 여기에는 성별과 나이, 거주 지역 및 교육 수준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⁹⁾ 본 연구에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값은 추정치 θ_1 이며,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게 된다.

추정에 있어서 오차항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으며, 종속 변수 형태에 따라 회귀분석은 강건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방식과 순서형 로지스틱(Ordered logistic) 방식을 활용하였다. 가상 기부금 정도를 종속 변수로 둔 분석의 경우 희망 기부금 액수에 로그를 취하여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강건 최소자승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에는 1에서 5의 자연수 값이 관측되는 범주형 데이터이기에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는데, 이때 해당 변수에는 순서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주요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세 가지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활용하여 이전 절에서도 도입한 회귀분석식(수식 1)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으로 추정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불평등 인식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때

9) 개인의 종교 역시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Guiso et al.(2003)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종교와 경제적 태도(Economic attitude)는 긴밀한 관계가 있고, 많은 종교에서 타인에게 주는 기부행위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 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격에 대한 응답률은 전체 샘플의 절반에 그치기 때문에 샘플 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설명 변수 중 자산 관련 변수인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와 부동산의 시장 가격 두 가지 경우를 따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인 특성이 기부할 의향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 상황에서의 희망 기부금 정도를 활용하여 같은 회귀분석식을 추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1)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의 관계

개인이 주어진 세 가지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각 문장 당 전혀 동의하지 않는 정도인 최소 1의 값에서 매우 동의하는 정도인 최대 5의 정도를 갖게 된다. 이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설명 변수에는 크게 노동 임금, 자산, 그리고 정치 성향 변수 등 총 세 가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자산 관련 변수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를 이용해서 추정하였으며, 모든 통제 변수를 고려하였고 노동 임금은 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활용했다.

이전 절에서 주요 분석의 추정 방식을 논의할 때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를 종속 변수로 두었을 때에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로지스틱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배율 인수(Scale factor)로만 식별되어, 단순히 계수 추정치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Allison, 1999). 따라서 설명 변수가 반응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개별 한계효과의 평균값을 구하는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도출하여 각 설명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각각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세 가지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보여준다. 해당 표의 첫 네 개의 행은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는 문장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보여준다. 노동 임금이 1% 늘어날 때마다 해당 문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0.3% 감소((2)열)하며,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할 확률은 0.26% 증가함((4)열)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해당 문장에 동의하지 않

을 확률이 약 1% 증가((2)열)하므로 노동 임금과는 반대의 방향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인 성향의 경우 중도적인 성향을 띄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해당 문장에 동의할 확률이 2.3% 정도 증가((2)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두 번째 문장인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에 미치는 한계 효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자산: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50***	-0.00257***	-0.00613***	0.00261***	0.00658***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298***	0.01070***	0.02550***	-0.01090***	-0.02740***
진보 성향	-0.00445***	-0.02320***	-0.05910***	0.02130***	0.06540***
보수 성향	-0.00186***	-0.00955***	-0.02210***	0.01070***	0.02280***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056***	-0.00161***	-0.00609***	-0.00020***	0.00852***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338***	0.00967***	0.03660***	0.00159***	-0.05130***
진보 성향	-0.00635***	-0.01850***	-0.07580***	-0.01130***	0.11200***
보수 성향	-0.00136*	-0.00386*	-0.01410*	0.00070*	0.01860*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026	-0.00066	-0.00122	0.00061	0.00154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767***	0.01940***	0.03580***	-0.01790***	-0.04500***
진보 성향	-0.01510***	-0.04200***	-0.10600***	0.02490***	0.13800***
보수 성향	0.01630***	0.03940***	0.05560***	-0.04940***	-0.06190***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성별, 연령, 종교, 고용상황, 교육 수준이 구체적으로 통제되었음.

Note: ***p<0.01, **p<0.05, *p<0.1.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occupation status,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번째 문장인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에 미치는 개인 특성의 한계 효과인데, 노동 임금의 한계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온 반면, 정치적 선호의 한계 효과에서 이전 문장들과의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더 가까울수록 소득이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약 3.9% 증가((2)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등해져야한다고 동의할

확률은 4.9%((4)열) 감소한다. 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더 가까울수록 평등해져야한다고 동의할 확률은 2.5% 증가((4)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경제적 불평등이 증대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가 작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재분배를 통해 특정 충격으로 인해 피해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강한 보수적인 정치 이념(Esarey, Salmon, and Barrilleaux, 2012; Corneo and Grüner, 2002)과 합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자산 관련 변수를 주거용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격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이때 샘플 수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도 자가의 시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포함하므로 총 4,694 개이다. 이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 로그를 취한 값이며, <표 4>는 해당 변수를 자산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의 한계 효과를 보여준다. 이전 분석과 비교했을 때 노동 임금과 정치 성향의 한계 효과는 비슷한 방향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관련 변수의 한계 효과 방향성도 유의미한 추정치가 나오지 않은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한다면 이전과 동일하다.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1% 높아질수록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동의할 확률은 0.08% 증가((4)열)하는 반면, “소득이 더 평등해져야 한다”에 동의할 확률은 1.6% 정도 감소((4)열)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개인의 경제적인 특성 중에서도 노동 임금과 자산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 둘은 재산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있지만 해당 소득을 받는 경로에 따라 달리 구별할 수 있는데, 노동 임금은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성과와 노력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⁰⁾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10) 경제학의 한계생산성이론(Theory of marginal productivity)에 따르면,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은 다른 투입요소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의 산출량 증가분인데, 이것이 바로 임금이 된다. 반면, 자산은 개인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 아이디어는 소득의 불평등을 모형에 반영하여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Aiyagari(1994) 타입의 모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질적 개체(Heterogenous agent) 모형에서 이질성은 개인 간 노동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는데, 이는 곧 노동소득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함을 함의한다. 이와 달리 해당 모형에서 자산의 경우 노동 소득의 차이로 인해 개인 간 차이가 나며, 자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성취와 노력에 연결되는 노동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가치가 높을수록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둘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태도는 비슷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식에서는 반대의 성향이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더 평등해져야 한다는 인식에도 동의하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평등해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자산: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가격)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41**	-0.00242**	-0.00491**	0.00249**	0.00525**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058	0.00343	0.00697	-0.00353	-0.00745
진보 성향	-0.00488***	-0.0295***	-0.0634***	0.0283***	0.0695***
보수 성향	-0.00239***	-0.0141***	-0.0277***	0.0162***	0.0281**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086***	-0.00248***	-0.00814***	-0.00046*	0.01190***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158***	0.00455***	0.01490***	0.00085*	-0.02190***
진보 성향	-0.00601***	-0.01750***	-0.06150***	-0.00935***	0.09450***
보수 성향	-0.00057	-0.00161	-0.00503	0.00027	0.00693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102**	-0.00241**	-0.00364**	0.00233**	0.00474**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725***	0.01710***	0.02580***	-0.01650***	-0.03360***
진보 성향	-0.01730***	-0.04620***	-0.09750***	0.03340***	0.12800***
보수 성향	0.02200***	0.04900***	0.05450***	-0.06210***	-0.06340***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성별, 연령, 종교, 고용상황, 교육 수준이 구체적으로 통제되었음.

Note: *** $p < 0.01$, ** $p < 0.05$, * $p < 0.1$.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occupation status,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산의 생산성(혹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2)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부할 의향 정도의 관계

이전 절에서 실시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기부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으로써 개인의 특성이 기부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드러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식별(Identification)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특성과의 유사성 역시 알 수 있다. 해당 분석을 위해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되는 가상 상황에서 이 중 얼마를 기부하고자 하는지를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정하게 되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이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설명 변수에는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노동 임금, 자산, 그리고 정치 성향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자산 관련 변수에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 변수와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격 변수를 고려하였다. 모든 통제 변수를 고려하였고, 노동 임금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 가격은 로그를 취한 값이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5>에 보고하였다. 첫 번째 열은 노동 임금만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이며,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각각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와 시가를 자산 변수로 설정했을 때의 추정치를 보고한다. 결과에 따르면, 노동 임금이 1% 늘어나면 가상 상황에서 기부할 기부금의 정도가 약 0.01% 감소한다. 여기서 평균 노동임금은 약 4,960,000원, 응답된 평균 가상 기부금 정도는 184,000원으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약 5만원의 노동 소득 증대는 가상 기부금 정도를 약 18원 내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 여부나 시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가 나오지 않아 자산의 정도가 가상 기부금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부금 정도는 이전 분석 결과와 합치되는 결과가 관찰된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해야한다는 질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와 일관되게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기부금 정도가 약 0.1%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 대비 진보적 성향을 더 갖는 사람들은 기부금 정도가 약 0.1%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가상 상황에서 기부할 의향 정도(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onation)

	(1)	(2)	(3)
종속변수: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이 중 얼마를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시겠습니까?” (0원 - 100만원)		
노동임금	-0.0111* (0.00641)	-0.0114* (0.00643)	0.00908 (0.00958)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143 (0.0281)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127 (0.0209)
진보성향	0.0994*** (0.0284)	0.0998*** (0.0284)	0.0722* (0.0393)
보수성향	-0.120*** (0.0324)	-0.121*** (0.0324)	-0.151*** (0.0443)
여성	0.0949*** (0.0258)	0.0947*** (0.0259)	0.0586 (0.0372)
나이	0.0259*** (0.00114)	0.0258*** (0.00116)	0.0293*** (0.00177)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Constant	0.801*** (0.294)	0.801*** (0.294)	-0.985 (0.660)
샘플 수	9,988	9,988	4,694
R-squared	0.097	0.097	0.109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

Note: ***p<0.01, **p<0.05, *p<0.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es.

2. 추가 분석

(1) 정치성향 대체 변수의 활용

본 절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개인의 정치성향에 대한 답변 대신 2022년 연세-용운 설문조사의 부가 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정치 이념으로 대변될 수 있는 다른 문항을 고려한 후 새로운 변수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부가 조사는 본 조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설문 참여자들이 참여하였고, 2022년 3월 초에 있었던 제 20대 대통령 선

거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본 추가분석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자들 중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에 한하여 후보 12명 중 투표한 후보 한 명을 선택하였는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 소속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이전 절과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본 추가분석에서는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당을 개인의 선호 정당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평가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었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같은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이때 다른 정치 이념을 나타내는 두 정당에 대해 동일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경우는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표 6>은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는데, 약 절반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띄는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선호하는 정당으로 꼽았고 약 40%가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조사에 참여한 2,000명 중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설문 참여자는 1,913명이며, 이 중 약 52%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¹¹⁾

<표 6> 정치 이념 관련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s of Political Ideology)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			
부가 조사 (대상: 1,683명)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국민의당
	143 명	840 명	700 명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			
부가 조사 (대상: 1,883명)	후보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92 명	1,003 명	788 명

자료: 2022 연세-용운 설문조사.
Source: 2022 Yonsei-Yongwoon Survey.

11) 본 연세-용운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어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이 샘플에 더 포함 될 수 있어 실제 국민들의 선호 정당보다 좀 더 특정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22년 통합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7,053명의 37%가 ‘국민의힘’을, 34%가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약 4%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래 <표 7>은 주요 분석에 참여한 샘플과 추가 분석에 사용된 샘플의 유사성을 비교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두 샘플이 유사하여 분석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가 샘플 차이에 기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7> 본 분석과 추가 분석 샘플에 대한 비교(Comparison of Samples used for Main and Additional Analyses)

		본 분석 샘플 (추가분석 샘플 제외)	추가 분석 샘플	t test / chi2 test results	
샘플 수		7,988 명	2,000 명		
성별	남성	50.84% (4,061 명)	50.8% (1,016 명)	chi2	0.001
	여성	49.16% (3,927 명)	49.2% (984 명)	p value	0.975
연령	최소 나이	20	20	t stat	-4.03
	최대 나이	69	69		
	평균	43.89	45.18	p value	0.0001
	표준편차	12.74	13.25		
학력	중졸이하	0.74% (59 명)	0.8% (16 명)	chi2	15.55
	고졸	19.54% (1,561 명)	17.35% (347 명)		
	대학교졸(2/4년제)	70.38% (5,622 명)	71.7% (1,434 명)	p value	0.03
	석사졸이상	9.34% (746 명)	10.15% (203 명)		

개인의 정치적 성향 변수를 선호하는 정당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로 정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요 분석과 동일하게 두고 회귀분석식(수식 1)을 추정하였다. 이때 자산 변수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¹²⁾ <표 8>은 개인이 선호하는 정당을 정치적 성향 변수로 두었을 때의 각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세 가지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보여준다. 노동임금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의 한계 효과는 주요 분석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불평등에 관하여 서로 반대의 방향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된 세 정당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정의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비교적 중도적 성향을 띄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해 소득이 평등해져야한다고 동의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에 매우 동의할 확률이 11.4% 증가(5)열함을 알 수 있어 주요 분석 결과와 비슷한 방향성을 확

12) 자산 변수를 주거용 부동산 시장가격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해도 동일한 방향성을 띄는 결과가 나오며, 해당 결과는 부록에 포함하였다.

인할 수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을 선호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어진 세 문장 모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해 증가((2)열)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요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해당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뿐 아니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에도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정치성향 변수: 선호 정당)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46**	-0.00478***	-0.0114***	0.00321***	0.0134***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0925	0.00952	0.0227	-0.00640	-0.0267
정의당	-0.000882	-0.00944	-0.0266	0.00101	0.0359
국민의힘/국민의당	0.00211**	0.0217***	0.0506***	-0.0168***	-0.0576***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097**	-0.00230***	-0.00848***	-0.00172**	0.0135***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304*	0.00725*	0.0267*	0.00542*	-0.0424*
정의당	-0.00519***	-0.0130***	-0.0590***	-0.0368**	0.114***
국민의힘/국민의당	0.00650***	0.0155***	0.0564***	0.00752**	-0.0859***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0467	-0.00157	-0.00272	0.00108	0.00368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631**	0.0213***	0.0368***	-0.0146***	-0.0498***
정의당	-0.00299*	-0.0124*	-0.0382*	-0.00558	0.0591
국민의힘/국민의당	0.0224***	0.0789***	0.139***	-0.0758***	-0.165***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성별, 연령, 종교, 고용상황, 교육 수준이 구체적으로 통제되었음.

Note: ***p<0.01, **p<0.05, *p<0.1.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occupation status,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표 9〉에는 개인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를 정치 성향 변수로 두었을 때의 한계 효과를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임금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의 한계 효과는 이전 분석들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표 8〉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이념을 지닌 윤석열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한계효과는 세 문장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띤다. 이재명

후보를 투표한 사람에 비해 윤석열 후보를 투표한 사람일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동의할 확률은 약 1% 감소((4)열)하며, 소득이 지금보다 평등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확률이 7.3% 감소((4)열)함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심상정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의 한계효과가 무의미하게 나왔는데, 이는 적은 샘플 수로 인한 표준오차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표 9〉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정치성향 변수: 투표 후보)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62***	-0.00458***	-0.0114***	0.00316***	0.0135***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170*	0.0126**	0.0316**	-0.00872*	-0.0372**
후보 심상정	0.00121	0.00904	0.0231	-0.00578	-0.0276
후보 윤석열	0.00184**	0.0137**	0.0340**	-0.00980**	-0.0397**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093***	-0.00246***	-0.00951***	-0.00176**	0.0147***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297*	0.00783**	0.0302**	0.00560*	-0.0466**
후보 심상정	-0.00210	-0.00569	-0.0248	-0.0102	0.0428
후보 윤석열	0.00418**	0.0110***	0.0421***	0.00643**	-0.0637***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066	-0.00196	-0.00384	0.00161	0.00486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0682***	0.0202***	0.0395***	-0.0166***	-0.0499***
후보 심상정	0.000298	0.00104	0.00327	-0.000165	-0.00444
후보 윤석열	0.0220***	0.0679***	0.138***	-0.0725***	-0.156***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성별, 연령, 종교, 고용상황, 교육 수준이 구체적으로 통제되었음.

Note: ***p<0.01, **p<0.05, *p<0.1.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occupation status,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종속 변수를 가상 기부금 정도로 두고 정치 성향 변수를 선호 정당과 투표한 후보로 수식 1을 추정 한 결과는 각각 〈표 10〉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석의 결과와 상이하게 노동임금과 가상 기부금 정도가 양의 관계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10〉에서 보수적 이념이 짙은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표 11〉

에 윤석열 후보를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사람은 가상 기부금 정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분석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보수 성향에 대한 추정치와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띄는 정당 선호와 후보를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의 계수가 추정되지만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표 10〉 가상 상황에서 기부할 의향 정도(정치성향 변수: 선호 정당)(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onation)

	(1)	(2)	(3)
종속변수: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이 중 얼마를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시겠습니까?”		
	(0원 - 100만원)		
노동임금	0.00767 (0.0158)	0.00732 (0.0158)	0.0356 (0.0223)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225 (0.0703)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168 (0.0414)
정의당	0.0867 (0.101)	0.0865 (0.101)	0.0466 (0.130)
국민의힘/국민의당	-0.170*** (0.0623)	-0.171*** (0.0624)	-0.180** (0.0830)
여성	0.118* (0.0615)	0.118* (0.0616)	-0.0123 (0.0849)
나이	0.0297*** (0.00263)	0.0295*** (0.00269)	0.0326*** (0.00387)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Constant	0.626 (0.501)	0.632 (0.499)	0.725 (0.810)
샘플 수	1,683	1,683	886
R-squared	0.137	0.137	0.148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

Note: *** $p < 0.01$, ** $p < 0.05$, * $p < 0.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es.

〈표 11〉 가상 상황에서 기부할 의향 정도(정치성향 변수: 투표 후보)(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onation)

	(1)	(2)	(3)
종속변수: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이 중 얼마를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시겠습니까?” (0원 - 100만원)		
노동임금	0.00895 (0.0149)	0.00877 (0.0150)	0.0281 (0.0215)
주거용 부동산 소유		0.0123 (0.0661)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204 (0.0459)
후보 심상정	0.105 (0.123)	0.104 (0.123)	0.154 (0.179)
후보 윤석열	-0.140** (0.0596)	-0.140** (0.0597)	-0.135* (0.0809)
여성	0.143** (0.0585)	0.143** (0.0584)	-0.0627 (0.0824)
나이	0.0293*** (0.00251)	0.0292*** (0.00255)	0.0320*** (0.00376)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Constant	0.547 (0.533)	0.550 (0.532)	0.547 (0.893)
샘플 수	1,883	1,883	961
R-squared	0.128	0.128	0.133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

Note: *** $p < 0.01$, ** $p < 0.05$, * $p < 0.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es.

(2) 도구 변수의 활용

본 절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의 내생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하여 도구변수 추정법¹³⁾을 적용하였다.

13) 본 분석에서는 도구변수 추정법 중 2단계 최소제곱법(2-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하였다.

이전 절에서 주요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변수 간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상관관계만을 얘기할 수 있었다. 즉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개인의 특성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락변수에 의한 편이(Omitted variable bias)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 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¹⁴⁾

본 절의 분석에서는 주요 분석에서 고려한 개인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중 자산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원활한 도구변수 추정법을 위해 연속변수인 가상 기부금 정도를 활용하였다. 자산 변수인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와 시장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로 2015년의 지역별 신규주택공급비율을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를 위해 한국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매년 게시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월별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 내역을 활용하여 2015년의 지역별 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계산하였다. 지역별 세대 규모에 따라 이러한 주택 공급 유입의 효과가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2015년 시군구별 주민등록 세대수를 각각 나눠주어 최종적으로 2015년의 지역별 주민등록 세대 수 대비 신규 분양된 공동주택 세대 수를 도구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변수가 적합한 도구변수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도구변수가 설명변수와 충분한 상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 (Relevance condition)과 오차항과는 상관성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는 점 (Exclusion restriction)이다. 2022년 조사 당시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 여부 혹은 소유했을 경우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7년 전 그 지역에 유입된 주택 공급 비율은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지역에 신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를 분양 받고 그 지역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신규 주택 보급 비율이 개인의 가상 기부금 정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4) 자세한 도구변수 추정법은 해당 책을 참고하였다(Angrist and Pischke(2014) "Mastering Metrics").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12>에 해당 도구변수와 자산 변수의 첫 번째 단계(First-stage relationship)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산 변수를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로 설정하였을 때의 첫 번째 단계 F 값은 6.33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당 변수에 대해서 신규주택보급비율이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라는 가설을 기각하기 어렵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으로 샘플을 한정된 후 자산 변수를 소유 부동산의 시장가격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F 값이 11.35로 소폭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을 겨우 넘는 F 값이어서 약한 도구변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 12> 자산 변수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추정 결과(First-Stage Results)

종속변수	(1)	(2)
	주거용 부동산 소유	주거용 부동산 시가
2015년 신규주택보급비율	0.355** (0.141)	1.421*** (0.422)
노동 임금	0.0177*** (0.00223)	0.0509*** (0.00734)
진보 성향	-0.0277*** (0.0105)	-0.123*** (0.0322)
보수 성향	0.00639 (0.0117)	0.0406 (0.0352)
여성	0.00901 (0.00934)	-0.0471 (0.0299)
나이	0.00691*** (0.000411)	0.00776*** (0.00136)
종교	✓	✓
고용상황	✓	✓
교육수준	✓	✓
Constant	0.0818 (0.0967)	9.394*** (0.662)
샘플 수	9,988	4,694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
 Note: ***p<0.01, **p<0.05, *p<0.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es.

<표 13>는 해당 도구변수로 주요 분석의 수식 1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낮은 F 값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자산 관련 변수에 대한 추정치

는 모두 무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다른 설명변수인 노동 임금을 제외하여도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약한 도구변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해당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의 자산 정도와 가상 기부금 정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도구변수 추정 결과(IV Results)

	(1)	(2)	(3)	(4)
종속변수: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이 중 얼마를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하시겠습니까?” (0원 - 100만원)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476 (0.364)	0.0467 (0.367)		
주거용 부동산 소유			-0.453 (1.047)	-0.439 (1.104)
노동 임금		0.00436 (0.0208)		-0.00478 (0.0206)
진보성향	0.0871 (0.0585)	0.0864 (0.0609)	0.0878** (0.0388)	0.0892** (0.0425)
보수성향	-0.156*** (0.0465)	-0.157*** (0.0459)	-0.116*** (0.0340)	-0.115*** (0.0333)
여성	0.0642* (0.0388)	0.0629 (0.0409)	0.0970*** (0.0298)	0.0982*** (0.0277)
나이	0.0290*** (0.00326)	0.0290*** (0.00324)	0.0289*** (0.00743)	0.0288*** (0.00767)
종교	✓	✓	✓	✓
고용상황	✓	✓	✓	✓
교육수준	✓	✓	✓	✓
(C-D) F-statistic	11.47	11.35	7	6.33
Constant	-1.525 (3.576)	-1.529 (3.560)	0.875*** (0.309)	0.888*** (0.287)
샘플 수	4,694	4,694	9,988	9,988
R-squared	0.102	0.102	0.068	0.070

주: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

Note: *** $p < 0.01$, ** $p < 0.05$, * $p < 0.1$. Robust standard errors are reported in parenthese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이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기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2022년 실시된 연세-용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도 노동 임금과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의 성취와 노력과 상대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재산인 노동 임금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의지가 떨어짐도 확인되었다. 반면, 이러한 불평등 인식의 방향성이 기부 행위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는지 분석해보았을 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치적인 성향은 인식과 동일하게 기부 행위와도 비슷한 방향성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제적 불평등 인지 및 개선 의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띄었던 노동 임금의 경우 기부 의향 정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주거용 부동산 소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한계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여 도구변수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불평등 인식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지만 약한 도구변수 문제로 인과성을 논의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원인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고 일자: 2023. 7. 21. 심사 및 수정 일자: 2023. 9. 2. 게재 확정 일자: 2023. 9. 4.

◆ 참고문헌 ◆

Allison, Paul D. (1999), "Comparing Logit and Probit Coefficients

- Across Group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8(2), 186-208.
- Andreoni, James, and A. Abigail Payne (2013), “Charitable Giving,”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5, Elsevier, 1-50.
- Angrist, Joshua D., and Jörn-Steffen Pischke (2014),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iyagari, S. Rao (2008),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3), 659-684.
- Bartels, Daniel M. (2008), “Principled Moral Sentiment and the Flexibility of Mo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ognition*, 108(2), 381-417.
- Benabou, Roland, and Efe A. Ok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 Corneo, Giacomo, and Hans Peter Grüner (2002), “Individual Preferences for Political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1), 83-107.
- Esarey, Justin, Tim Salmon, and Charles Barrilleaux (2012), “Social Insurance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 Laboratory Experimen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5(3), 685-698.
- Greer, Robert J. (1997), “What is an Asset Class, Anyway?”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23(2), 86.
- Hvidberg, Kristoffer B., Claus Kreiner, and Stefanie Stantcheva (2020), *Social Positions and Fairness Views on Inequality*, No. w280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enworthy, Lane, and Leslie McCall (2008), “Inequality, Public Opinion and Redistribution,” *Socio-Economic Review*, 6(1), 35-68.
- Lee, Hae-Young, Jongsung Kim, and Beom Cheol Cin (2013),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53(1), 95-109.
- McCall, Leslie, and Lane Kenworthy (2009), “Americans’ Social Policy Preferences in the era of Rising Inequality,” *Perspectives on*

Politics, 7(3), 459-484.

Piketty, Thomas (2017),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Piketty, Thomas,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2018),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Methods and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2), 553-609.

Piketty, Thomas, Li Yang, and Gabriel Zucman (2019), "Capital Accumulation, Private Property, and Rising Inequality in China, 1978-2015," *American Economic Review*, 109(7), 2469-2496.

Saez, Emmanuel, and Gabriel Zucman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519-578.

〈부 록〉

〈표 부.1〉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소유 여부)(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0405*** (0.00948)	0.00943 (0.00968)	0.0394*** (0.00953)
주거용 부동산 보유	-0.169*** (0.0441)	-0.276*** (0.0429)	-0.237*** (0.0426)
진보성향	0.388*** (0.0448)	0.737*** (0.0443)	0.498*** (0.0450)
보수성향	0.145*** (0.0505)	-0.460*** (0.0536)	0.0882* (0.0507)
여성	-0.0396 (0.0398)	0.0911** (0.0399)	0.0304 (0.0396)
나이	-0.00339* (0.00178)	0.0224*** (0.00182)	0.0108*** (0.00178)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9,988	9,988	9,988

〈표 부.2〉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시장 가격)(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0345** (0.0148)	0.0314** (0.0156)	0.0556*** (0.0151)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490 (0.0334)	-0.223*** (0.0341)	-0.102*** (0.0334)
진보성향	0.443*** (0.0646)	0.730*** (0.0639)	0.426*** (0.0644)
보수성향	0.193*** (0.0730)	-0.525*** (0.0757)	0.0334 (0.0729)
여성	-0.0308 (0.0602)	-0.00339 (0.0610)	-0.0191 (0.0601)
나이	-0.00488* (0.00282)	0.0255*** (0.00289)	0.00861*** (0.00279)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4,694	4,694	4,694

〈표 부.3〉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보유, 정치 성향: 선호 정당)
(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0786*** (0.0241)	0.0613*** (0.0220)	0.0225 (0.0231)
주거용 부동산 보유	-0.157 (0.115)	-0.193* (0.110)	-0.305*** (0.108)
정의당	0.189 (0.158)	0.480*** (0.170)	0.284* (0.170)
국민의힘/국민의당	-0.346*** (0.104)	-0.395*** (0.103)	-1.067*** (0.107)
여성	-0.0517 (0.101)	0.0438 (0.101)	0.147 (0.102)
나이	0.00492 (0.00447)	0.0198*** (0.00459)	0.0351*** (0.00455)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1,683	1,683	1,683

〈표 부.4〉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보유, 정치 성향: 투표 후보)
(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0779*** (0.0221)	0.0663*** (0.0211)	0.0302 (0.0215)
주거용 부동산 보유	-0.215** (0.108)	-0.210** (0.105)	-0.310*** (0.102)
후보 심상정	-0.158 (0.194)	0.184 (0.197)	-0.0227 (0.225)
후보 윤석열	-0.231** (0.0968)	-0.290*** (0.0947)	-1.009*** (0.0984)
여성	-0.0395 (0.0930)	0.00421 (0.0937)	0.151 (0.0934)
나이	0.00480 (0.00427)	0.0178*** (0.00425)	0.0332*** (0.00420)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1,683	1,683	1,683

〈표 부.5〉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시가, 정치 성향: 선호 정당)
(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0910*** (0.0328)	0.100*** (0.0314)	0.0756** (0.0320)
주거용 부동산 시가	-0.163* (0.0874)	-0.164** (0.0771)	-0.268*** (0.0814)
정의당	0.159 (0.336)	0.387 (0.298)	-0.132 (0.346)
국민의힘/국민의당	-0.282** (0.140)	-0.454*** (0.138)	-1.179*** (0.141)
여성	-0.0299 (0.143)	-0.0711 (0.140)	-0.0504 (0.139)
나이	0.0126* (0.00650)	0.0205*** (0.00647)	0.0352*** (0.00664)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961	961	961

〈표 부.6〉 경제적 불평등 인식 정도(자산: 주거용 부동산 시가, 정치 성향: 투표 후보)
(Economic Inequality Awareness and Labor Income)

	(1)	(2)	(3)
종속변수: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소득은 지금보다 평등해져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5)		
노동임금	0.113*** (0.0343)	0.113*** (0.0328)	0.0790** (0.0324)
주거용 부동산 시가	-0.146* (0.0810)	-0.136* (0.0806)	-0.233*** (0.0782)
후보 심상정	0.163 (0.238)	0.581** (0.257)	0.448* (0.264)
후보 윤석열	-0.345** (0.149)	-0.575*** (0.148)	-1.264*** (0.150)
여성	0.0801 (0.153)	0.0411 (0.146)	0.00982 (0.150)
나이	0.00997 (0.00679)	0.0243*** (0.00686)	0.0411*** (0.00696)
지역	✓	✓	✓
종교	✓	✓	✓
고용상황	✓	✓	✓
교육수준	✓	✓	✓
샘플 수	1,683	1,683	1,683

〈표 부.7〉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자산: 주거용 부동산 시가, 정치성향: 선호 정당)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881**	-0.00737***	-0.0150***	0.00567***	0.0176***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114	0.00953*	0.0194*	-0.00733*	-0.0227*
정의당	-0.00101	-0.00884	-0.0211	0.00256	0.0284
국민의힘/국민의당	0.00275*	0.0230**	0.0463**	-0.0194**	-0.0527**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150**	-0.00408***	-0.0150***	-0.00290**	0.0235***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181	0.00494	0.0182*	0.00351	-0.0284*
정의당	-0.00459**	-0.0134**	-0.0651**	-0.0511*	0.134**
국민의힘/국민의당	0.00797**	0.0218***	0.0796***	0.00973*	-0.119***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194**	-0.00578**	-0.00846**	0.00403**	0.0121**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571***	0.0171***	0.0250***	-0.0119***	-0.0359***
정의당	-0.00452*	-0.0182*	-0.0557*	-0.0148	0.0932
국민의힘/국민의당	0.0303***	0.0976***	0.149***	-0.0933***	-0.184***

〈표 부.8〉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자산: 주거용 부동산 시가, 정치성향: 투표 후보)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equality Awareness)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2)	(3)	(4)	매우 동의함 (5)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은 어렵다.”					
노동 임금	-0.000935**	-0.00593***	-0.0122***	0.00443**	0.0146***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167*	0.0106*	0.0218*	-0.00792*	-0.0262*
후보 심상정	-0.00133	-0.00878	-0.0209	0.00261	0.0284
후보 윤석열	0.00294*	0.0186**	0.0381**	-0.0147*	-0.0450**
“최근 10년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노동 임금	-0.00144**	-0.00365***	-0.0133***	-0.00302**	0.0214***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235*	0.00597**	0.0218**	0.00494*	-0.0351**
후보 심상정	-0.00376	-0.0100	-0.0448	-0.0314	0.0899
후보 윤석열	0.00664**	0.0168***	0.0612***	0.0119**	-0.0966***
“소득은 지금보다 더 평등해져야 한다.”					
노동 임금	-0.00200**	-0.00529**	-0.00856**	0.00430**	0.0115**
주거용 부동산 시가	0.00709***	0.0187***	0.0303***	-0.0152***	-0.0409***
후보 심상정	0.00195	0.00640	0.0179	-0.000987	-0.0252
후보 윤석열	0.0298***	0.0839***	0.146***	-0.0848***	-0.175***

The Effect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and Giving

Seoyoon Jeong* · Myungkyu Shim**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ow different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mpact their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and actions of giving. Using the 2022 Yonsei-Yongwoon survey data, we find that individuals with high labor income tend to be more aware of prevailing economic inequality while willing to donate less. Those who possess one or more residential properties are less aware of inequality. Political ideology also effects perception differently, in that individuals having relatively progressive views believe income should be more equalized, while the opposite is observed for those with conservative views. These findings are robust throughout various robustness checks.

KRF Classification : B030100, B030400

Key Words : inequality awareness, charitable giving, income difference, political attitude

* First Author, Ph.d. Student,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seyoonyeong@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myungkyushim@yonsei.ac.kr